

# “시 보따리에 담긴 진품명품의 삶과 향기”

서은 문병란 시인 시선집  
‘녹두녹두 꽃 수월래’ 발간  
시집 36권서 130여편 엄선  
20일 시선집 발간 기념 문학제



문병란문학연구소는 시선집 '녹두 녹두 꽃 수월래' 발간을 계기로 오는 20일 문학제를 개최한다. 지난 2019년 열렸던 문학제 장면.

“나더러 녹두꽃을 아느냐 물으면/ 차마 두려워 모른다 한다.// 나더러 녹두꽃을 노래하라 하면/ 차마 죄스러워 모른다 한다...”(문병란 ‘녹두꽃 사연’ 중에서)

시 ‘녹두꽃 사연’에는 높고 낮음이 없이 모두 평등한 대동세상을 열고자 했던 전봉준과 이름없는 농민군들의 열이 깃들어 있다. 그리고 이 땅의 가난하고 억압받는 민초들을 위해 희망의 노래와 시를 멈추지 않았던 문병란(1934~2015) 시인의 시혼이 느껴진다.

문병란 시인의 시는 간결하면서도 리듬감과 감성적인 특징이 있다. 누구든 가만히 읊조릴 수 있고, 소리를 내 낭송할 수 있다. 시인이 남긴 시 보따리에 겨레를 사랑하는 마음과 민초들에 대한 애정이 가득 담겨 있다. 코로나로 일상이 비좁지만 그의 시 한 소절 읽다보면 그렇게 새로운 의지가 솟아남을 느끼게 된다.

서은 문병란 시인이 떠난 지 만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를 그리워하는 이들이 많다. 문단과 5·18 단체, 대학 등 사회 각계에 그가 남긴 소중한 인연들이 적지 않다.

이번에 문병란 시인의 시선집 ‘녹두녹두 꽃 수월래’가 출간돼 눈길을 끈다.

서은문병란문학연구소(이사장 황일봉·문학연구소)가 펴낸 이번 시선집은 시인의 36권 시집 속에서 가려 뽑은 작품을 모았다.

당초 시선집 출간은 고인의 이름을 딴 시낭송회 대회를 계기로 구제화됐다. 지금까지 두 차례에 걸쳐 개최된 전국시낭송회에서 150여 편이 낭송됐



는 올해 문학제 개최를 앞두고 시선집을 발간하기로 했다. 지난 여름부터 36권의 시집에서 고른 작품과 시낭송회에서 낭송했던 150편 가운데 육고를 뽑아 130편의 시를 엄선했다.

작업에 참여한 흥영숙 문학연구소 시낭송회장은 “선생님을 위해 기념될 만한 일을 찾다가 시선집 출간에까지 생각이 닿았다”며 “사람들과의 일상과 자연에서 느낀 감동들이 흘러가는 사랑 이야기들은 시 보따리를 풀면 풀수록 진품명품 그 자체였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시선집 발간을 기념하고 시인의 삶과 문학을 기리는 문학제도 열린다. 오는 20일 오후 3시 동구문화센터 5층 강당에서 개최되는 문학제는 전국 시낭송 애호가들과 함께 고인의 민족사랑과 민주주의

의원과 평화의 노래(시)를 기억하자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문학제에서는 시낭송, 초대 가수 공연, 하모니카 연주, 우리 춤, 시극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진다. 황일봉 이사장의 개회사, 강숙자 부이사장의 연혁 보고, 임원식 광주예총협회장·탁인석 광주문협회장 축사가 있을 예정이다.

제1부 서은문학 출판 기념회에서는 여는 시로 김숙희 시인이 ‘호수’를 낭송하며 서은문학 문예창작 교실 이대훈 시인의 격려사가 이어진다. 조순아·김영향·권정숙낭송가는 ‘가을 행’, ‘춧발’ 그리워 한다는 것’을 낭송한다. 또한 ‘마침표 없는 오월’이라는 시를 모티브로 흥영숙·지희순·송미숙·임경희·유송자·정훈조 낭송가가 시극을 발표한다.

제2부 서은 문병란 시선집 출간기념회에서는 서은문병란문학연구소 이근도 수석부이사장의 인사말에 이어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진다.

우리춤 나르샤 공연단의 공연을 시작으로 이미례 시낭송가와 김용갑 시인, 강은숙 시인이 각각 ‘강의 노래’, ‘희망가’, ‘바다가 내게’를 낭송한다. 또한 서은 문예창작교실 시낭송 김수하 지도교수는 ‘지상에 바치는 나의 노래’를 낭송할 예정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박진현의 문화카페

3년 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반 고흐 미술관을 찾던 날, 미술서적이거나 인터넷에서만 접했던 ‘문제작’을 마주했다. 고흐의 초기작으로 꼽히는 ‘감자먹는 사람들’ (1885년 작)이었다. 하지만 난생 처음으로 ‘직관한’ 느낌은 충격, 그 자체였다. 솔직히 말하면 감동 보다는 무서움이 더 컸다. ‘해바라기’나 ‘별이 빛나는 밤’에서 본, 특유의 화사한 캔버스와 달리 지나치게 어두웠기 때문이다.

‘감자먹는 사람들’은 화면 왼쪽의 시계바늘이 7시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 저녁식사를 하는 가족을 소재로 한 작품이다. 어두컴컴한 주방의 식탁에 둘러 앉아 감자를 나눠 먹는 이들의 모습은 왠지 잔다. 힘든 하루 일과를 마치고 모인 가족의 저녁 한끼가 고작 감자라니... 그럼에도 이들의 표정은 그리 어둡지만은 않다. 공

전시에는 ‘감자먹는 사람들’을 비롯한 미디어 작품 10여 점과 성 교수가 독일 유학시절부터 40년간 수집해온 200여 개의 희귀한 초대가 한 자리에 모였다. ‘코로나19로 힘들었던 시간을 견뎠은 이들에게 힐링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이이남 작가의 바람대로 거장의 명화와 수십, 수백년의 세월을 지나온 전 세계의 다양한 초대들이 모두의 마음에 빛을 밝혀준다.

지난 7일 무각사(주지 청학스님) 로터스 갤러리에서 개막한 ‘이철수 판화전-문인가 하였던지, 다시 길’ (내년 2월28일까지)도 우리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네주는 전시다. 이철수 작가의 목판화 인생 40년을 기념해 기획된 이번 전시에는 ‘무문관’ 연작과 ‘몽실언니’ 등 동화 삽화, 최근 10년간 작업한 판화 등을 만날 수 있다. 전시 제목 ‘문인가 하였던지, 다시 길’은 무문

##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장에서 퇴근한 남편을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아내의 표정과 딸에게 감자를 건네는 할머니의 온화한 미소에서 따뜻함이 전해지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가족의 테이블에 온기를 불어넣고 있는 건 ‘흐릿한 램프’다. 주방 천장에 내걸린 램프에서 새어나오는 빛은 비록 희미하지만 고된 이들의 삶을 온온하게 비춘다.

‘감자를 먹는 사람들’을 다시 만난 건 광주 양림동에 자리한 ‘이이남 스튜디오’에서다. 미디어 아티스트 이이남씨와 철학자이자 초대 수집가로 잘 알려진 성진기 전남대 명예교수가 의기투합한 ‘밝히고 비추는 Shining brightly’ 전 (12월1일~내년 2월13일)이 그것이다. 과거의 빛을 상징하는 촛불과 초대, 현재와 미래의 빛을 상징하는 미디어아트로 과거와 현재를 잇는

해계가 편집한 선종 공안집(公案集)인 ‘무문관(無門關)’에서 따온 것으로, 부처의 가르침을 깨우치게 할 계기와 방편의 언어들을 마흔 여덟 편의 이야기로 담았다. ‘판화로 시를 쓰는 작가’라는 타이틀을 지닌 이 작가의 글과 그림은 쫓기듯 살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휴식을, 지친 현대인에게 위안과 안식을 준다.

‘큰 나무를 흔드는 바람이 우리들의 마음조차 흔들때/ 흔들릴 것들 다 흔들리라 하고 기다린다/ 기다리는 그 마음만 고요하게... 흔들릴 것들 다...’ (이철수 작 ‘흔들릴 것들 다’).

어느 새 한해의 그트머리다. 올해가 가기로, 마음이 따뜻해지는 전시장을 찾아 팬데믹으로 무더진 마음을 추스려 보면 어떨까. 앞만 보고 달려왔던 한 번쯤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 보는 계기가 될 것이기에. (제작국장·문화선임기자)

## 드들강변서 부르는 풀여치 시인의 풀잎 노래

장흥 출신 김황흠 세 번째 시집  
‘책장 사이에 귀뚜라미가...’ 펴내



‘드들강에서 농사도 짓고 시도 짓는 시인’ 김황흠 시인을 일컫는 말이다.

시인은 농사를 지으며 시를 쓴다. 농사일이나 시를 짓는 일이나 모두 생명과 관련돼 있다. 살아 있음을 노래하고 살아 있는 것들을 향한 애정을 드러낸다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다. 자연과 하나 되지 않고는 그 무엇도 이룰 수 없다.

김황흠 시인이 세 번째 시집 ‘책장 사이에 귀뚜라미가 산다’ (문학들)를 펴냈다.

시인은 화순과 나주를 가로질러 영산강으로 흘러드는 드들강변에 산다. 드들강변은 일터이자 매일

같은 산책로이기도 하다. 그러기에 밭 담고 선 농촌은 먼 시간 속과 거도, 다가오지 않을 미래도 아닌 바로 현재라는 시간위에 펼쳐져 있다.

‘일하다 무릎을 다쳐 누웠는데/ 지구의 공전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낮선 별들이 떠 있는 우주 한가운데/ 들깨 알처럼 작은 내가/ 떠 있는 것 같다’

‘귀가 온다’라는 시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작고 사소한 것의 미덕, 나아가 자아를 내려놓는 하심과 겸손을 일깨운다. 마음으로 땅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니라고는 깨달을 수 없는 지고의 세계다.

물독에 줄 지어 선 백로와 눈을 마주친 순간을 표

현한 이미지는 아련하고 따스하다. “날마다 강변을 돌아다니는 내게/ 뭘 일 있냐고 묻는 것 같고”나 “이마를 쪼아버릴 듯 벼슬을 흔들어” 대는 ‘맨드라미 수탉’은 땅을 일구며 자연과 사는 이만이 느끼는 깨끗한 심상이다.

김 시인이 아니면 표현할 수 없는 그만의 노래이며 절창이다. 시 구절 곳곳에서 겸손하고 외로운 그러나 자신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는 이의 뒷모습이 읽히는 이유다.

이대를 시인은 해설에서 “어리고 투명한 날개로 마른 풀잎 같은 노래를 실 새 없이 부른다. 이렇게 힘없고 외롭고 쓸쓸한 풀여치의 무대는 중앙도 아니고 높은 데도 아니다”며 “그런 풀여치 같은 시인이 김황흠 시인이다”고 명명한다.

한편 장흥 출신 김 시인은 2008년 ‘작가’ 신인상으로 등단했으며 시집으로 ‘숯눈’, ‘건너가는 시간’과 시화집 ‘드들강변서’를 펴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팬데믹 시대 성평등 실현 토론의 장 열린다

광주여성가족재단 오늘 워크숍

광주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김미경·이하 재단)은 15일 오후 2시 재단 3층 북카페 은새실에서 팬데믹 시대, 변화된 일상에서 성평등 가치를 공유하기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의 주제는 ‘팬데믹 시대 성평등 가치 공유’로 노동, 건강, 돌봄, 젠더폭력 등의 영역에서 코로나 19로 인해 여성들이 겪는 불평등과 이에 대한 해결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혜원(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실) 실장이 ‘코로나19 이후 여성가족정책 변화와 미래’를 주제로, 박정숙(남부대 자연과학연구소) 소장이 ‘성평등 가치 공유-건강’에 대해 발제한다.

토론자로선 채현숙(유패한 젠더로) 소장, 김효경(광주여성민우회) 사무처장, 전은재(광주일보) 기자, 박태순(광주여성가족재단 인구조용팀) 팀장이 참여한다. 진행은 이정운(보성시니어클럽) 관장이 맡는다.

이번 워크숍은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후원하며 성평등교육진흥협의회 소속 17개 회원기관 간 양성평등문화, 성평등 확산을 위한 공동협력사업이다.

이번 워크숍은 대면과 비대면 동시에 진행한다. 현장 참여는 사전신청을 해야하며 재단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볼 수 있다. 문의 062-670-0530.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 전기차 환경부 무상보조 실시 중!

전기종 - 자동차용 리튬이온 배터리 장착(10년 사용), 가정용220V로 충전, 원동기 면허로 운전

**에코EV102**

2인승 오토바이 핸들방식  
최대속도 50km  
주행거리 100km

판매가격	무상보조금	도내생산보조금	본인부담금
833만원	303만원	48만원	482만원

**나이스3L (캐노피 1만원)**

적재중량 200kg  
최대속도 47km  
주행거리 90km

판매가격	무상보조금	도내생산보조금	본인부담금
650만원	330만원	48만원	272만원

**나이스1L**

안전필수 전복방지(틸팅) 기능  
최대속도 60km  
주행거리 50km

판매가격	무상보조금	본인부담금
462만원	330만원	132만원

**emart 이마트 광주점(광주터미널점) 전시 중!**

친환경전기차 전라남도 대표 생산기업!

**DAEPOONG**

본사·공장: 전남 영광군 대마면 전기차로 133 (대마 전기자동차산업단지 내)

상담 문의

**061) 352-3010 (내선2번)**  
**061) 872-8880, 1**

고흥지사 010-2548-7111  
나주대리점 010-3626-3848  
장성대리점 010-2819-3546  
전남 동부권역 010-2450-1954

광양대리점 010-5355-1292  
함평대리점 010-2602-6051  
광주·영광 010-3925-2181  
전남 서부권역 010-3647-9709

전국대리점 / 취급점 문의

**010-2034-0141**